

수 실 류

상수리나무

목 차

1. 식물의 특성
 - 1-1. 형태적 특성
 - 1-2. 주요성분 및 용도
2. 재배환경
 - 2-1. 지리적 분포
 - 2-2. 생육지의 입지환경
3. 재배기술
 - 3-1. 번식방법
 - 3-2. 식재
4. 재배방법
 - 4-1. 풀베기
 - 4-2. 비료주기
 - 4-3. 수형조절
5. 병해충방제
 - 5-1. 주요 해충
 - 5-2. 주요 병해
 - 5-3. 동물피해
6. 수확 및 전망
 - 6-1. 도토리 수확
 - 6-2. 상수리나무 재배 전망

상수리나무

- 학명 : *Quercus acutissima* Carruth.
- 영명 : *Sawtooth Oak*
- 한명 : 橡, 櫟(韓), 靑剛樹(中), 栲木(日)

1. 식물의 특성

1-1. 형태적 특성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 산림면적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자생 활엽수 중의 대표적인 향토수종으로 중국과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가 20~25m, 가슴높이의 지름이 1m 가까이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피는 검은 회색이고 갈라지며 잔가지에 잔털이 있으나 없어진다. 잎은 길이가 10~20cm이며, 모양은 장타원형이고 둔두 또는 예두이며 넓은 예저 또는 원저이다. 거치의 끝에 침이 예리하게 튀어나와 있고 12~16쌍의 측맥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3cm로서 털이 없다. 잎이 비슷한 굴참나무의 잎은 뒷면에 털이 많아 희게 보여 구별된다. 꽃은 1가화로서 5월에 피며 웅화서는 새가지 밑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처지고 자화서는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곧추 나와 1~3개의 암꽃이 달린다. 수꽃은 5개로 갈라진 화피 열편과 8개 정도의 수술로 되며 암꽃은 총포로 싸이고 3개의 암술대가 있다. 열매는 다음해 10월에 익으며 포린은 젖혀진다. 종자는 둥글고 지름 2cm 정도로서 식용 및 약용으로 하거나 사료로 이용한다.



그림 1. 수꽃



그림 2. 암꽃



그림 3. 어린 도토리



그림 4. 성숙 도토리

1-2. 주요성분 및 용도

1-2-1. 성분

종자(도토리) 1kg에서 추출한 아코닉산(Acornic acid)은 중금속(수은, 납, 크롬, 카드뮴, 니켈, 아연)폐수 3.4톤을 정화하고, 특히 우라늄 액체폐기물을 정화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우리 몸에 축적된 중금속도 정화시킨다. 도토리의 일반성분은 탄수화물 48.8%, 조단백질 4.2%, 조지방 1.7%, 회분 1.1%, 수분 44.2%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질 함량은 P 598, K 198, Mg 33, Ca 26, Na 76, Mn 2.1, Zn 0.5, Cu 0.2mg/100g을 각각 함유하고 있다.

1-2-2. 용도

상수리나무의 용도는 아주 다양하여 열매(도토리), 목재, 잎 등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나무다. 도토리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부터 식량자원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흉년이 들면 밥, 묵 등 음식을 만들어 먹고 흉년을 이겨낸 중요한 구황작물의 열매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도토리의 전분을 이용한 식품이 저칼로리 알카리성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묵, 죽, 빵, 과자, 떡, 면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약리작용으로 지사, 건위, 강장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목재는 화장단판, 가구, 기구 등에 활용하고, 참나무류 표고자목 중 상수리나무가 표고 생산량과 품질에서 가장 우수하며, 고급 숯과 목초액을 생산한다.

2. 재배환경

2-1. 지리적 분포

우리나라의 분포지역은 수평적으로 위도 33°20'의 한라산에서 시작하여 39°50'의 함경남도 사수산까지이며, 수직적으로는 해발고는 50~500m로 주로 산록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만 분포하는데 중국 동북부, 대만, 일본의 본주, 사국, 구주, 히말라야 난·온대지방이 대표적이다.

2-2. 생육지의 입지환경

상수리나무는 심근성으로 토양양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수종이다. 재적생장이 좋은 임분의 생육환경 특성을 보면 지형이 동북쪽의 산기슭이며 토양은 사질양토로 견밀도가 낮아 부드럽고, 토색은 흑갈색이며 유효 토심이 깊은 산록부로 배수가 잘되는 입지였다. 과거에 경작하던 산록부분의 유희농지나 천수답이 식재지로 적당하다.

3. 재배기술

3-1. 번식방법

증식방법은 종자과중에 의한 실생묘 증식과 접·삽목에 의한 무성증식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배목적에 따라 증식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산지조림용 묘목생산은 실생묘증식, 우량종자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이나 도토리 조기생산을 위해 대립 다수확성으로 선발된 우량목의 대량증식은 아직까지 접목증식법이 최선의 방안이다. 삽목증식이나 조직배양법은 유령목에 대한 증식은 가능하나 성숙목의 대량증식에 대한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3-1-1. 실생묘증식

(1) 종자채취, 정선 및 저장

상수리나무의 개화결실은 4월 말부터 5월 초순에 수꽃과 암꽃이 피어서 수정된 어린 도토리는 다음해 8월부터 9월에 급속히 성장하여 10월에 성숙해서 떨어진다. 종자채취는 다른 수종과는 달리 완숙되어 떨어진 종자를 주어서 이용하고, 정선은 도토리를 24시간 침수하여 수면에 뜨는 불순물과 종자를

● 수실류

제거하고 가라앉은 종자를 꺼내서 손상을 받았거나 미성숙 종자를 제거한다. 종자저장은 정선된 도토리를 톱밥+모래와 혼합하여 비닐봉지(0.1mm)에 넣고 약간 공기가 통할 수 있을 만큼 묶어서 $-2^{\circ}\text{C}\sim 2^{\circ}\text{C}$ 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 30개월이 지나면 약 0.5mm이하의 유근이 일부 발생하지만 발아력에 문제가 없었다. 종자수집 후 이듬해 봄에 파종할 계획이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종자를 정선한 후 포장하여 $2^{\circ}\text{C}\sim 5^{\circ}\text{C}$ 의 저장고에 보관하면 특별한 발아촉진 처리 없이도 발아가 잘된다.



톱밥+피트모스



톱밥+모래

그림 5. 5°C 저장고에 30개월 저장된 종자

(2) 상 만들기

양묘할 장소가 선정되면 파종이나 이식하기 최소 2주전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와 토양소독 약품을 뿌리고, 토양이 너무 단단하면 적당하게 모래도 넣어 트랙터나 경운기로 깊게 경운을 한다. 상수리나무와 같은 참나무류의 파종, 이식상은 보도 보다 높은 고상으로 하는데 상 폭 1m, 보도 폭 30~50cm, 묘상의 높이(보도에서 상의 높이)는 7~10cm, 상 길이는 10~20m로 만들고 상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동서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묘상 만들기 작업이 끝나면 가벼운 롤러로 상을 눌러주는데 그 이유는 종자의 이동을 막고, 복토의 두께를 일정하게 조절하여 상 표면의 보수력을 증가시키며, 세균발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3) 파종

상수리나무 종자의 파종은 양묘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 내에서 묘목의 생육단계별로 온도, 광, 수분, 시비, 일장 등을 조절하는 최적의 생육환경조절

시스템을 갖춰서 우량 묘목을 단기간에 대량생산하는 시설양묘 (Container tree seedling)에서 용기파종을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노지(묘포장)파종만 기술한다. 노지양묘는 파종시기에 따라 봄철에 파종하는 춘파와 늦가을에 파종하는 추파로 구분하는데 춘파는 늦서리가 끝나는 2주일 전에 파종하고, 지온이 유지된다면 땅이 풀리는 대로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파는 종자 채취 후 땅이 얼기 전 늦가을에 파종하는데 발아조건이 자연 상태와 유사하여 발아율이나 생장이 좋지만, 초봄에 서릿발로 인한 종자의 노출로 조류, 설치류의 피해가 많고, 매장기간이 길어 병충해의 피해가 우려되는 단점도 있다.

(3-1) 파종방법

참나무류 파종에서 대면적 파종을 할 때는 노동력과 경비 절감을 위해서 산파(흩어뿌림)를 하고 가벼운 롤러로 누른 다음 복토를 하는 파종방법을 사용했다. 주로 유묘(이식용 묘목)생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속아내기로 종자가 허비되고, 제초, 시비, 굴취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점파(점뿌림)는 1㎡당 파종량을 계산하여 균일한 간격으로 제작된 파종 판에 맞춰서 종자의 약 2배정도 골을 파고 1개씩 놓아서 파종하고 특별한 복토작업 없이 파낸 흙을 덮고 파종된 상이 평탄하도록 손으로 가볍게 고른다. 산파에 비해 노동력과 경비는 증가하지만 계획된 건전묘목을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편리하며 특히 종자를 아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3-2) 파종량

파종량은 양묘시업기준(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하면 산파로 할 때 1㎡당 479.2g(약 127개)을 고르게 흩어 뿌리고, 점파로 할 때는 폭 9cm, 길이 100cm의 파종 판을 제작하여 1㎡당 121개(가로 11개 × 세로 11)를 파종하는데 1년생을 조립용 묘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1㎡당 64개(가로 8개 × 세로 8)로 줄여서 파종하고 이식용 묘목을 생산하는 데는 1㎡당 169개(가로 13개 × 세로 13)까지 늘여서 파종을 해도 발아율이나 생장에 큰 지장이 없었다.

(4) 이식

(4-1) 단근

상수리나무 1년생 묘목은 직근성으로 주근만 있고 측근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조립용 묘목으로 부적당하다. 건전한 조립용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 수실류

뿌리를 적당한 길이로 단근한 후 이식을 하면 측근이 발생하여 뿌리발달이 증가된다. 단근의 길이는 이식묘의 생장과 이식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10cm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상수리나무 파종묘 단근길이별 성장특성

단근 길이 (cm)	활착율 (%)	묘고생장(cm)		근원경생장(mm)		지상부 무게(g)		단간 후 지하부(g)	
		단간 전	단간 후	단간 전	단간 후	단간 전	단간 후	측근수	무게
5	62.5± 11.0	26.6± 1.3	60.6± 3.7	4.5± 0.8	8.1± 1.0	1.1± 0.2	7.4± 0.9	3.6± 0.5	11.7± 2.6
10	76.4± 4.8	29.6± 3.0	69.1± 3.6	4.8± 0.7	9.4± 1.2	1.1± 0.3	12.8± 2.8	3.4± 0.6	21.0± 4.7
15	80.6± 6.4	30.3± 3.4	69.6± 5.5	4.3± 0.6	8.8± 0.7	1.2± 0.2	14.7± 3.0	3.5± 0.2	29.5± 5.5

(4-2) 이식밀도

이식본수는 양묘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림용 묘목생산은 m²당 50본(양묘사업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m²당 64본(8×8본)을 이식하면 활착율과 생장이 더 좋았다(표 1). 접목묘를 생산하기 위한 이식은 접목의 능률성, 활착된 접목묘의 생장(묘고 1-2m), 접목상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m²당 36본(6×6본)이 가장 좋았다.

표 2. 상수리나무 파종묘(1-0묘)의 이식밀도별 성장특성

이식밀도 (본)	활착율 (%)	묘고(cm)	지상부무게 (g)	근원경 (mm)	지하부무게(g)	전체무게 (g)
7× 7	67.3± 4.2	64.3± 3.1	10.3± 0.3	8.4± 0.3	18.7± 0.4	29.0± 0.1
8× 8	75.0± 3.1	67.2± 2.6	10.8± 0.2	8.5± 0.4	21.4± 1.4	32.2± 1.6
9× 9	71.6± 2.1	60.6± 2.3	7.3± 0.9	7.7± 0.2	17.9± 1.6	25.2± 2.5
10× 10	59.0± 1.5	61.4± 1.8	7.9± 0.8	7.8± 0.4	18.2± 0.7	26.1± 1.4

(5) 짚 깔기

파종이나 이식작업이 끝나면 묘상의 토양습도를 유지하고 종자나 흙의 유실을 방지하며 묘목의 토고방지를 위해서 짚 깔기를 한다. 마른 짚을 잘 정리해서 1m²당 약 600g을 까는데 짚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묘상의 길이 방향으로 두 줄로 새끼줄을 쳐서 말뚝으로 눌러 둔다.



그림 6. 점파종



그림 7. 파종상 및 이식상

3-1-1. 점목 증식

(1) 대목양성

상수리나무의 점목에서 다른 참나무류의 대목은 사용했을 때 점목활착율이 떨어지고 점목불화합성이 높아진다. 상수리나무 파종묘(1-0묘) 중 평균 크기의 묘목을 골라서 앞서 설명한 이식상에 1㎡당 36본(6×6본)을 이식하여 다음해 봄에 1-1묘를 사용한다.

(2) 점수채취 및 저장

수액이 이동하지 않는 시기(2월 초순~2월 중순)에 점수로 사용할 가지를 잘라서 한데 모아 젖은 이끼를 꼭 싸서 자른 부분에 덮은 다음 비닐로 싸서 점목할 때까지 냉장고(2~3℃)에 저장한다.

(3) 대목상 비닐터널 씌우기

기존 상수리나무의 점목방법은 한 대목상의 점목이 끝나면 바로 비닐터널을 씌워 점목상을 관리한 결과 점목상 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맹아지 제거, 잡초제거, 관수 등의 작업시 비닐터널 벗겨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습도 유지와 온도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점목활착율이 매우 낮았다. 새로운 방법은 점목 20일~30일 전에 대목상 2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닐터널(높이 2m, 폭 3m)을 만든다. 비닐터널 위에 50%의 비음망을 천막형태로 씌워서 공기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여 온도 상승을 최소화 했다. 이러한 비닐터널의 장점은 대목의 수액이동을 왕성하게 하여 점목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비닐터널 내에서 점목, 관수, 맹아지제거, 잡초제거 등 일련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점목 관련 모든 작업이 전천후로 이루어져 아주 효과적이었고 점목 활착율도 높일 수 있었다.

● 수실류

(4) 접목시기 및 방법

접목시기는 3월 중 대목의 수액이 왕성하게 이동하여 잎눈이 터지기 전후 접목하는 것이 접목활착율을 높이는데 가장 좋다.

기존의 접목방법은 밤나무 등 활엽수에 적용해 오던 절접법으로 접목활착율이 30%~40%로 낮고 접목이 되었더라도 접목불화합성이 높아 접목묘가 많이 고사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접목법은 접목할 때 대목의 접목부위를 최대한 낮추고(3cm 이하) 기존 활접을 변경시킨 저위 변형활접법으로 접목을 했다. 그 결과 접목활착율이 60~75%로 높았고 접목 부위의 접착이 아주 잘 되어 그동안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온 상수리나무 접목불화합성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접목방법 뿐만 아니라 접수 채취 및 저장방법, 접목시기, 접목상 비닐터널 씌우기 등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적인 관리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접목 활착된 접목묘 그림 9. 비닐제거 후 접목묘 경화

3-1-2. 삼목 증식

상수리나무의 삼목에서 휴면지 삼목은 거의 발근이 잘 안되지만, 어린나무 녹지삼목은 발근율이 높은 삼목법으로 알려져 있다. 상수리나무 녹지삼목 대량증식은 10년 이하의 어린나무에서 6월 중순~7월 초순에 채취한 녹지를 안개 관수장치가 설치된 무가운 비닐온실에서 발근촉진제인 루톤을 처리하여 삼목을 했을 때 가능했다. 성숙목의 녹지삼목은 발근율이 아주 저조하여 새로운 우량 품종증식의 수단으로는 어렵다.

3-2. 식재

3-2-1. 식재묘목의 단근, 포장

상수리나무의 도토리(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접목묘를 식재해야 조기에 생산이 가능하다. 식재할 접목묘는 2년생(1-1묘) 대목에 접목하여 그 이듬해 생산한 묘목(G1/1-1)으로 묘고가 2m 이상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1.2m 높이로 잘라서 식재하고, 접목부위가 불량한 접목묘는 식재를 하지 않는다. 접목묘의 단근길이는 조림 활착율과 생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길게 하는 것이 좋지만 식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25~30cm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목묘의 포장은 1본씩 뿌리에 젖은 이끼를 싸서 비닐봉투로 개별 포장을 한다.

3-2-2. 식재 시기 및 본수

봄 식재는 전국 어디에서나 해토 후 가급적 빨리(3월 중순~4월 중순) 심으면 활착율이 높다. 가을 식재는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토리생산을 위한 식재본수는 ha당 400본, 식재간격은 5m×5m로 심는데 제초작업 등 초기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수광량이 높아 가지발달과 생장에 유리하고 개화결실도 많아진다.

4. 재배방법

4-1. 풀베기

상수리나무 접목묘는 묘고가 1~2m로 식재한 첫해도 잡초에 피압되지 않지만 잡초로 인한 양료의 손실과 병해충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식재 후 5년까지 매년 풀베기 작업을 해준다. 풀베기는 둘레베기를 하고 주로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작업할 때 식재한 접목묘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2. 비료주기

상수리나무는 토양 양료의 요구도가 높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간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란다. 비료는 유기질비료나 완숙된 퇴비를 시비하고 가능하면 금비는 피하는 게 좋다.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결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시비하여 생장을 왕성하게 하는데 식재 후 약 5년간 비료를 준다.

4-3. 수형조절

상수리나무가 도토리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크고 가지가 많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형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지가 겹쳐서 수광량이 부족한 가지, 병든가지는 잘라주어야 결실량이 많아진다.

5. 병해충방제

상수리나무를 가해하는 병해충은 많지만 저항성이 강한 편이라 피해가 적고 생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도토리 생산에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는 해충은 도토리거위벌레(*Mecorhis ursulus*)인데 당년도에 수확할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잘라버린다. 피해를 입은 나무 밑을 보면 어린 도토리가 달린 가지가 수북하게 널려있다. 이 해충은 6월 중순~9월 하순경에 우화한 성충이 어린 도토리에 주둥이를 박고 즙을 빨아먹고 생활하면서 도토리에 산란관을 꽂고 알을 낳은 후 그 가지를 잘라서 땅에 떨어뜨려 부화한다. 적기에 방제를 못하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방제를 위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등록된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추후 농약정보서비스 (<http://pis.rda.go.kr>) 또는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수리나무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과 병해는 아래와 같다.

5-1. 주요 해충

5-1-1. 도토리를 갉아먹는 해충

거위벌레과(도토리), 바구미과(밤, 도토리), 명나방과(복숭아), 잎마리나방과 (밤애기)

5-1-2. 잎을 갉아먹는 해충

대벌레과(대벌레), 풍뎅이과(참콩), 거위벌레과(거위), 바구미과(떡갈나무벼룩), 주머니나방과(차, 남방차, 검정), 어리굴나방과(참나무), 췌기나방과(흰점, 노랑, 장수, 흑색무늬, 꼬마), 자나방과(니토베가지, 참나무겨울가지, 뒷흰가지, 밤나방(한일무늬, 피라밀까마귀), 재주나방과(재주, 밤나무, 붉은머리, 참나무, 떡무늬, 벼들, 곱추, 갈무늬, 곧은줄), 독나방과(매미나방, 붉은매미나방, 사과독나방, 콩독나방, 흰독나방, 독나방, 차독나방), 솔나방과(도토리나방, 천막벌레나방), 산누에나방과 (어스랭이나방, 가중나무고치나방)

5-1-3. 구멍을 뚫는 해충

하늘소과(하늘소, 줄, 털뚜꺼비), 왕바구미과(왕바구미)

5-1-4. 즙을 빨아먹는 해충

노린재과(분홍다리노린재), 각지벌레과(단풍, 짚신, 왕공, 거북밀, 표주박, 밤나무등근), 진딧물과(밤나무왕, 갈참나무가루)

5-1-5. 흑 형성 해충

흑벌과(어리상수리, 신갈마디)

5-2. 주요 병해

참나무 잎마름병(엽고병), 갈참나무 흰가루병, 갈참나무 자색곰팡이병, 참나무류 등근별병, 참나무 그을름병

5-3. 동물피해

다람쥐, 청설모, 들쥐 등 설치류

6. 수확 및 전망

6-1. 도토리 수확

실생묘를 심어서 잘 관리했을 때 꽃이 피고 종자가 결실되려면 약 6~10년이 소요되지만, 접목묘를 심어서 관리했을 때는 3~5년 밖에 걸리지 않아 우량한 도토리를 조기에 생산할 수 있다. 수확시기에 도달하면 어린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잘라내는 도토리거위벌레의 방제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도토리의 수확은 다른 유실수와 같이 기계나 인력으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 도토리가 익어서 갈색으로 변하면 자연히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수집하면 된다. 도토리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미리 채취하여 저장하면 부패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한다.

6-2. 상수리나무 재배 전망

우리나라에서 상수리나무는 목재생산과 더불어 전통 기능성식품(묵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토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도토리의 전분이 저칼로리 알카리성 웰빙식품의 원료로 알려져 묵뿐만 아니라 떡, 면류, 죽, 빵, 과자 등에 활용되고 있어 수요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토리의 국내 수요량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산 도토리로 만든 제품이 고가이지만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상수리나무 재배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상수리나무 도토리의 대량생산은 개발된 대립다수확 우량품종을 야산이나 휴경지 등에 조성하고 조성 후 약 5년간만 일반적인 관리 즉, 풀베기와 유기질 비료 주기 정도만 관리해도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과수재배에 비해 훨씬 노동력과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이고 일손이 부족한 농산촌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